여자가 장을 보는 이유

(마12:1~8)

1. 그 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2.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3.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4.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5.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6.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7.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8.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여자가 장을 보는 이유>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증거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첫 번째로 등장하는 안식일 논쟁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읽다보면 끊임없이 이 바리새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 문제를 갖고 걸고 넘어져서 예수님께 시비 거는 것을 자주 대하게 됩니다.
그 모든 안식일 논쟁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오해를, 오늘 이 마태복음 첫 번째 인식일 논쟁에서 그 이유를 우리 눈앞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 논쟁에 대한 이유를 알면 복음이 생활에 적용 될 때에 모습과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눈앞에 그림을 그려서 보듯이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자가 장을 보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살펴봅니다, 장도 주로 특별히 먹거리 장을 의식하면서 한번 생각해 봐요.
혼기를 놓친 노처녀가 장을 본다, 독립해서 삽니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노처녀라는 말을 굳이 그렇게 부정적인 뉘앙스로 볼 필요는 없죠?
어쨌든 좀 나이가 들었는데 결혼을 안 하고 있는 여자가 먹거리 장을 본다, 보는 이유는 뭡니까?
너무나 상식적이라서 질문의 가치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먹을 것을 사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연령의 여자가 바로 한 달 전에 결혼을 해서 장을 보고 있다, 신랑을 위해서 먹거리 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너무나 상식적입니다.
똑같은 연령의 여자가 대학교 다니는 중에 결혼을 하게 되어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보는 이유가 남편뿐만이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도 장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연령의 여자가 장을 보는데,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장보는 이유가 주로 어디로 치중이 되게 됩니까?
어르신들의 식성에 맞게 맛있게 먹을 것을 염두에 두고 장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상식적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먹거리 장을 보지만 장을 보게 되는 이유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에 가서 먹을거리를 사게 되는 그 내용물도 부모님을 모시고 있을 때, 남편과 아이들을 부양해야 되는 가정주부일 때, 신랑을 위해서 사는 새색시일 때, 그리고 혼자 사는 여자일 때 그 내용물도 다 달라지게 되요.

이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예수님의 안식일 논쟁을, 왜 이렇게 논쟁을 할 수밖에 없는가?
바리새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예수님이 답답해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면서 우리의 삶은 과연 복음에 비추어서 어떤 상태인가를 또 진단해 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 상식적인 이유 여자가 장을 보는 이유, 이것을 염두에 두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서 안식일의 의미는 어떻게 변했느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여자의 입장으로 안식일이 바뀐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부모님께서 멀리 따로 살고 계시고 명절 때가 되어서 부모님을 찾아 갑니다.
이 부모님을 찾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서울에서 벌려 놓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의 일은 다 접고 시골에 있는 부모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바로 이런 의미였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행하면 안 된다, 서울에서 삶의 터전을 다 거기서 일어난 일을 다 접고 중단하고 시골 저 산골에 계시는 부모님께 찾아가듯이 구약의 안식일의 의미가 그랬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뒤에 안식일의 의미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안식일의 의미는 바뀐 게 아니에요, 안식일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행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모시고 사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자~ 시누이가 바리새인입니다.
시누이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올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올케가 전화를 받지 않고 한~참 벨이 울린 뒤에야 어머니가 '여보세요'하고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누이가 딱 머리에 생각나는 게 '나이 드신 부모님들을 집에 놔두고 혼자 이렇게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올케가 집을 나가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계절이 바뀌면서 겨울에 부모님들이 입으셔 야 될 내복과 새 옷을 사기 위해서 시장에 나가서 지금 3시간째 헤매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시어머니의 체형이 너무나 키가 작고 배가 불쑥 나오고 뚱뚱해서 그 체형에 맞춘 옷을 사느라고 애쓰면서 돌아다니느라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며느리의 모든 행동은 시어머니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데, 집을 비워도 시어머니 때문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시어머니께 제때 밥을 못 드려도 시어머니의 옷 사느라고 시간을 보내는 바람에 다급해하면서 지금 쩔쩔매면서 '아유 빨리 맞는 옷을 사 갖고 돌아가서 어머니께 밥을 해 드려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데, 시누이가 볼 때는 '아니 시어머니를 혼자 놔두고? 시어머니와 떨어져 있으면서 저렇게 자기 혼자 돌아다니는구나!'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떨어져 있는 것도 시어머니 때문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께 제때 밥을 못 해드린 것도 시어머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어머니 옷을 사느라고.
그런데 올케가 볼 때는 시어머니를 제대로 봉양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바로 이 논리가 그대로 안식일 논쟁에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키워드를 제시 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특이하게, 갑자기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서 회막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자기가 먹고 자기와 함께 사람들이 먹은 사건의 이야기를 들추어내십니다.
왜 이 진설병 먹는 이야기를 들추어내십니까?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밭이랑을 지나다가 그 이삭을 밀 이삭을 손으로 잘라 가지고 비벼서 먹었어요, 이거 도둑질이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서리가 아닙니다.
율법에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밭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끊어서 먹는 것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낫을 대면 안돼요, 낫을 대면 안 되지만 손으로 끊어서 먹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나그네들의 굶주림을 염두에 둔 것이지요.
그래서 진설병으로 옮겨가면서 다윗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 12개가 두 줄로 6개씩 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진열되어 있다가 안식일이 되면 또 새것으로 냅니다 - 그래서 거기서 내려오게 되는 것은 제사장이 먹었는데, '이것을 먹지 않았느냐? 그래도 죄가 아니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이어서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여러 가지 노동을 하고 있다, 너희는 지금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맞다, 구약에서 그랬는데 지

금 상황이 바뀌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바뀌기 이전에도 제사장들이 성전에서는 노동을 해도 괜찮지 않았느냐 그건 안식을 범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보세요! 여러분, 특징이 뭡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펼쳐내시는 논거에서 특징적인 단어가 뭡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전 안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었고, 제사장도 성전 안에서 노동을 할 때는 모든 노동을 그만 두어야 된다는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는 게 아니다'라고 얘길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 안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을 때, 그것이 율법을 범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제사장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안식일 날 노동을 두 배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제사는 제사의 양이 두 배이기 때문에 노동을 두 배로 해도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는 행동,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와 성전의 의미가 붙어 있다는 겁니다.

성전의 의미가 뭐에요?
성전이라는 곳은 삶의 현장과 날카로운 칼로 잘라내듯이 끊어내서 격리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현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제를 거쳐야 됩니다.
번제가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이 이 삶의 현장에서 묶여있는 상태, 이 상태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관심거리가 되는 상태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처음 만난 분인 것처럼 만나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를 통해서 세상의 삶에 대한 이 모든 관계가 끊어져서 새롭게 태어나는 의미가 바로 번제에요.
양이 죽습니다, 양이 왜 죽습니까?
자식사랑하고, 부모사랑하고, 형제사랑하고, 가정부양하고, 사업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내 인생 사랑하고, 내 건강 사랑해서 이것저것 행동하느라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나 자신이 이

세상 몸과 결부되어서 살고 있던 내 삶 자체가 통째로 죽고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바로 번제 속에 들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왜 제사장들이 안식일 날 노동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까?
왜 안식일 날 삶의 현장에서 노동하면 죄가 됩니까?
똑같은 안식일인데 성전 안에서 움직이면 죄가 안 되고 성전 바깥에 삶의 현장에서 움직이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의 의미는 뭐에요?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노동을 중단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내 마음이 완전히 죽는다는 걸 말합니다.
왜? 하나님하고만 관계하기 위해서, 하나님하고만 관계하기 위해서.
그런데 성전에서는 노동이 가능합니다.
성전이 어떤 장소 입니까? 삶의 현장에서 끊어진 장소에요.
그러므로 성전 안에서의 움직임은 삶에서 내게 주어진 이유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시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며느리가 움직이는 먹거리 장을 보기 위해 움직이는 모든 행동들이 다 시부모님의 입맛 때문에 움직이고 시부모님의 옷 때문에 장을 보는 것처럼,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과만 관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모든 행동의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두 배의 노동을 합니다, 안식일 날.
그런데 그 모든 노동의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 때문에 하는 노동이 되는 겁니다.
그때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라는 얘깁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오신 뒤 상황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하면서 밀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다는 것은, 추수를 하는 행동 그러니까 작은 미니추수에요, 미니추수.
그래서 그것을 노동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허락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굳이 주님께서 이걸 어길 필요는 없었어요.

그런데 왜 괜찮다고 여기신 겁니까?
당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는 장소였고 그 하나님의 임재장소 안에서는 하는 행동이 하나님 때문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는 나를 위해 살고 내 가족을 위해 살고 내 사업을 번성하기 위해 살고 내 건강을 위해 행동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삶의 현장에서는.
그래서 중단하라는 겁니다.
하루에 일주일의 하루는 하나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만을 위한, 하나님만으로 모든 삶의 이유가 끝이 나버리는 그런 하루를 가지라는 거였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뒤에는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제자들이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다닙니다.
밀 이삭을 왜 먹습니까? 예수님 쫓아다니느라고 미처 먹을 것을 준비를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밀 이삭을 길가다가 안식일에 잘라 먹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는 행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성전보다 크다' 성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되고 하나님하고만 관계하고, 하나님하고만 관계하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죄가 안 되었던 것과 같이, '나는 성전보다 더 크다 근데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하는 동안에 나로 인해 이유가 발생해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 너희가 죄를 묻느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에게 찾아가기 위해 명절 때 이 서울에서의 삶을 접고 찾아 갔지마는 이제는 그 부모님께서 와서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행동이 다 부모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행동이 되어버린 상태라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마치 부모님이 안 계실 때에 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할 때라도 내용을 보면 다 부모님과 연관되어 있어서 부모님 행동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라는 얘깁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구약의 안식은 이 세상 삶의 현장에서 돈 때문에 걱정도 하고, 건강 때문에 불안해하기도 하고, 자녀 때문에 마음 앓이를 하고 속이 썩고 이러다가도, 다~ 끊어내는 겁니다.
노동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세상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함을 느끼고, 하나님만으로 기쁨을 느끼고.
그래서 시편 37편 같은 경우에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서 여호와가 기쁜 상태에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라.
안식일의 의미가 그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하고만 같이 있는 것으로 평강의 이유를 삼는 거였어요.
이러지 않으면 끊임없이 삶의 현장으로 빨려 들어가서 죽게 되니까,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되니까, 세상에 미쳐 날뛰게 되니까.
가속화 되는 거예요, 점점 열병에 빠져들어 가니까, 세상의 일을 끝내는 하루가 꼭 있어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만이 기쁨의 이유가 되고 하나님만이 만족의 이유가 되었던 그러한 안식의 상태가, 늘상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장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는 동안 주님께서 함께하시면서 장사 행위가 그 이전에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잘살기 위해서 장사하다가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아, 이게 장사에 미쳐 돌아가는구나, 이제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고 돌아갔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장사 자체가 주님 때문에 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만족은 안식일 날에 하나님 때문에만 만족했던 하나님 때문에만 기뻐했고 하나님 때문에만 평강했던 그 상태가, 시장통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만족해요.
이제는 장사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하게 되는데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쁘고 적게 벌어서 슬픈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쁜 상태가 되어버리면서 장사를 하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구약적으로 지키던 때에 평일 날 하던 모든 행동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행동을 다 하는 가운데에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구약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지키던 안식의 상태가 이루어져가고 있는 거예요.
안식의 상태가 시간적으로 제한이 없어져 버립니다, 공간적으로 제한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에, 이전에는 구약 때는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기뻐하다가 안식일 되면 '아이쿠, 내가 돈 때문에만 기뻐하면 되냐? 돈아 내 마음에서 물러가라'
그리고 안식일 날은 하나님 때문에만 기뻐하기 위해 하나님을 묵상하고 율법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제는 어떤 상황이 되었느냐?
돈이 벌리건 안 벌리건, 돈이라는 상황이 내 마음에 붙기도 전에, 건강이라는 상황이 내 마음에 붙기 전에, 자식이라는 상황 가정이라는 상황 사업의 상황이 내 마음에 붙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통하여 내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기쁜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느끼던 만족과 기쁨을 중단하고 '아, 하나님으로 바꿔야지'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기쁜 상태가 되는 거, 이게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뭡니까?
그 분과 함께 있으면 내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상태에요, 안식의 내용은 기쁨과 만족과 평강이지요, 평강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이 뭐냐? 그분과 함께 그것과 함께 있으면 내가 기쁘고 만족하고 평강할 수 있는 것.
만약에, 만약에 사업이 성공해야만 기쁘고 만족하다면 사업이 여러분의 안식의 주인입니다, 자식이 잘 되어야 내 마음이 기쁘고 만족하다 그러면 자식이 여러분의 안식의 주인입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얘기는 '내 기쁨과 내 만족과 내 평강이 주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의미에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이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이유가 뭡니까?
자비를 원한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이 스물 네 시간 진행되는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 죽으므로, 안식일 때처럼 죽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 대해 죽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렸잖아요?
또 성전에 들어가면 번제를 통해서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해 보겠다고 마음이 몸에 붙어있던 상태가 죽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평강을 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가 바로 안식의 의미가 들어있고 제사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삶에 죽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삶에 죽는다는 것은, 돈 많이 벌어야 기뻤던 상태가 죽는다는 거고, 돈 많이 안 벌리면 슬프던 상태도 죽는다는 얘기고, 자식이 잘 되어야 마음이 평강하던 상태가 죽는다는 얘기에요.
하나님하고 만나게 된다는 얘깁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고 안식일이 날마다 날마다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래요, 날마다 안식이라는 뜻이고 때마다 안식이라는 뜻이고 언제든지 안식이라는 뜻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과 붙어서 하나님 때문에만 만족할 때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이 될 수밖에는 없다는 얘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말입니다 정말 모든 본문이 다 그렇지만 유대사회에서 아니,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혁명적인 선언이에요.
뭐 영국의 마그나카르타, 이런 것은 유가 아니에요.
대헌장, 공산주의 선언, 공산주의 선언이 있고 나서 온 이 세계가 다 뒤집혀지지 않습니까? 난리가 한바탕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유가 아니에요.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순간 동안에 세상의 상황에 대해선 죽은 상태에서, 세상의 상황과 관계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행복하고 완전히 기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혁명이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돈이 벌리건 안 벌리건, 건강하건 안 하건 어떤 상황이던지 간에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한 상태로 그 상황을 맞이할 때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끙끙거리던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뿜어나가는 상황으로 변해간다는 겁니다.
돈 벌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가 뿜어 나가는 그 일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든지 뭐 하든지 간에 어떤 상태, 아내를 만나 대화할 때도 하나님의 자비가 뿜어져 나가는 겁니다.

왜? 그 전에는 아내하고 씨름하면서 살았어요, 잘했네 못했네, 너 때문에 행복하네 불행하네, 그러다가 안식일 되면 '아, 아내하고 관계 끝내고 하나님하고 관계해야지' 이랬는데 이제는 아내와 관계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치고 들어와서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하나님께 만족할 때 아내를 보면, 아내를 향하여 자비가 나갈 수밖에 없지요.
남편을 봐도 하나님의 자비가 나갈 수밖에 없고, 자식을 봐도 그렇고, 회사에 그 악덕 사장님을 봐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면 회사에서 만족을 얻으려 했던 구약의 안식일의 이 체계를 벗어나서 십자가로 날마다 죽으면서 날마다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게 되면, 악덕 사장을 보면서도 그 전에는 원망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혁명적이지 않아요? 혁명적이지요,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것을 허용하는 거예요.
스물 네 시간 안식, 일주일 내내 안식, 일 년 365일 안식.
안식은 뭡니까?
기쁨과 만족과 평강입니다.
하나로 다 뭉쳐질 수도 있는 단어들이지요.
만족하면 기쁘고 기쁘면 만족한 거고 기쁘면 평강한 거고 불안하면서 기쁠 수는 없으니까.
만족과 기쁨과 평강 이 세 가지 측면으로 말할 수 있는 샬롬의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이 샬롬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자유로워지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자유로워요, 이걸 하면 안 돼, 돼, 안 돼, 돼, 이런…
왜? 하나님 때문에 만족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표현될 뿐이니까 자유로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십자가가 그걸 해 준다는 거예요.

아~무 것도 하지 마세요, 오직 날마다 순간마다 십자가를 기억하며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은 자다' 왜? 죄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 죄적 습성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어느 순간에든 고백만 한다면 스물 네 시간 편의점처럼 스물 네 시간 안식이 주어지고, 안식이 주어지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행동은 부모를 모시고 사는 여자가 먹거리 장을 보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때문에 하는 일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도, 자식 때문에도, 가정 때문에도, 가장이라는 신분 때문에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하는 일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뭐에요?
마태가 왜 여기에 갖다 붙입니까?
앞에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지우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으로서 행동을 하며 사는 것, 가벼~운 짐이라는 얘기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가 막힌 혁명적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몇 퍼센트나 삶에서 경험하고 확인하며 살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뭐 대단한 것 해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닌데, 주님의 십자가를 잊지 않고 바라보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안 되어서 우리가 이 혁명적 복음의 내용을 내 것으로 삼지 못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셔서 십자가를 잊지 않게 해 주시고 스물 네 시간 약속된 안식이 내 마음에 흘러가는 강물처럼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하옵나이다.
아멘!